

전주형 스마트시티 청사진 제시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시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등 구축

앞으로 버스정류장과 편의점, 주유소 등 단계적으로 전주시 전역에 시민들이 24시간 이용가능한 무료 와이파이존이 구축된다.

또한, 도시 내 주요 시설에 설치된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실내공기질 정보를 분석해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전주시민들은 항상 쾌적한 실내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1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전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비전 전략,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재원 조달 방법 등이 발표됐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가 살기 좋은 미

래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무선 네트워크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수행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약 6개월에 걸쳐 전주 시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해왔다.

그 결과, '사람중심 문화특별시 전주'를 비전으로 △프리와이파이도시 △실내 공기질 환경개선 △주차통합정보시스템 △스마트 전주 관광 △시민 성장센터 △스마트도시재생 △디지털 지역화폐 '전주페이' △통합재난안전 지원체계 △도시관계프로세스 통합운영 등 9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9대 핵심과제가 장기적으로 모두 실

현되면, 전주시민들은 도시 전역에 구축된 무료 와이파이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항상 쾌적한 실내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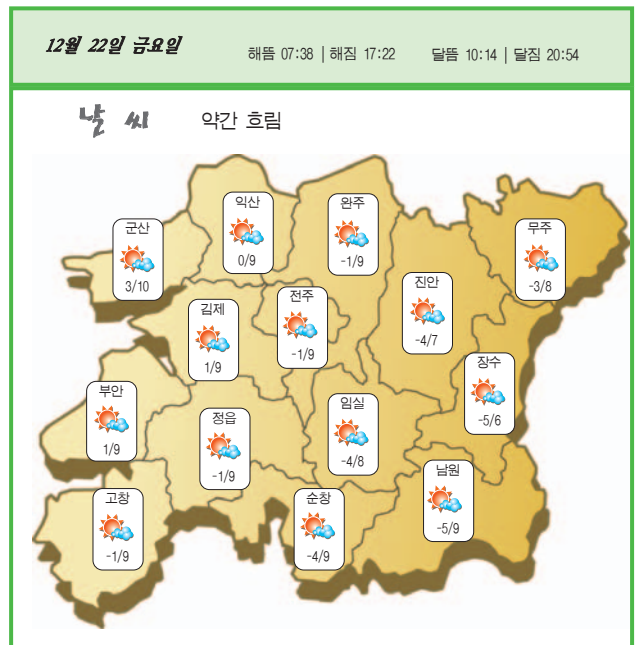
또한, 교통 및 숙박, 축제·행사, 편의시설 등 모든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 전주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고, 시민들은 운전자에게 빈 주차장과 주차공간, 최단 거리 및 최적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생활이 편리해진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9대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서비스와 수익형 서비스로 구분해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과 증장기 로드맵도 함께 제안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원도심을 포함한 전주시 일원에서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주도형 상향식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수립 △전주형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서화동 예술인마을, 일반근린형)에 따른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 전주만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극 나서 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스마트시티 보급 및 확산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은 원도심 재생 연계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혁신성장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 정책과 적극 연계하면서 사람의 가치와 삶이 존중받는 지속성장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향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부안군이 전주대학교와 21일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음식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대 청소용역근로자 전원 정규직 된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 청소용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북대학교는 21일 전북대학교 청소용역 근로자 대표, 전북대학교 대표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소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열고, 정규직 전환 인원 및 고용방식, 정년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청소용역 근로자 119명 전원이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년은 대부분 만 65세이며 6명의 1968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0세로 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역시 근무경력에 따라 총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최종 정해졌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TF팀을 구성하여 약 5개월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국 국립대학 중 청소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전북대학교가 최초로, 이번 전북대학교의 결정은 앞으로 사회양극화의 해결과 사회통합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노사·전문가 등 전환 합의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 창출

이남호 총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중 국립대학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하는 정규직 전환 롤모델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내년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승진·전보·신규임용·정년·명예퇴직 등 총 785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8년도 1월 1일자로 4급 지방서기관 승진 4명,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승진 15명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승진 156명과 전보 433명, 신규임용 56명,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 총 78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원인 승진자는 총 156명으로 각각 교육행정 4급 4명, 5급 15명, 6급 26명, 7급 79명, 전산, 사서, 시설, 공업, 사무운영, 시설관리, 전기운영 등 32명이다.

지방서기관은 김영주 사무관이 정책공보담당관 기획·소통협력담당으로, 장효람 사무관이 전북학생교육원 총

무부장으로, 최성휘 사무관이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으로 승진 발령됐으며, 김형태 재무과장이 예산과장으로, 박성현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이 예산과 교육협력담당으로, 박양상 정책공보담당관 기획·소통협력담당이 행정과장으로,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견 후 복귀하는 김명희 서기관이 재무과장으로, 김종명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오진 행정과장이 군산교육문화회관장으로, 이용희 예산과장이 남원 교육문화회관장으로, 소기현 예산과 교육협력담당이 전주교육청 행정지원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보는 2011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공직에 입문하는 교육행정 35명과 전산, 시설, 공업, 운전직 등 21명 총 56명은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고려해 발령했다. 한편 신규임용 공무원은 22일 오후 2시, 4급, 5급 인사발령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6급 이하 도교육청 전출임 공무원은 27일 오후 3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잼버리대회 준비 음식개발 박차

부안군·전주대 업무협약... 먹거리산업 발전 단초 기대

부안군은 전주대학교와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음식개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부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규 군수와 이호인 전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잼버리대회 준비 음식개발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음식관련 전문자료·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한 기술 개발지원, 식품산업과 연계 청년창업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협력 체계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 군은 이번 협약이 지역의 음식산업

발전과 먹거리 개발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향후 전주대 부설 농수산물 음식개발 연구소를 부안군 진서면 소재 품소저갈밭효식품센터 내에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규 군수는 "부안을 찾는 1000만 관광객과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행복한 기억과 그리움을 남겨주고 싶다"며 "부안의 맛과 멋 그리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스마트 음식관광 도시 개발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운서, 박민지)은 호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성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